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병원, 개원 8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병원은 9월 27일 개원 8주년을 맞아 5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을, 1층 로비에서 개원기념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김민호 행정처장의 경과보고, 내빈소개, 장기근속자표창,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 시상, 동국학술연구대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정창근 경영부총장은 “내가 있는 이 병원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기뻐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신뢰받는 병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며 병원발전에 헌신하는 모든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총장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날 수상에는 동국학술연구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 장기근속자수상으로 물류팀 박현주 외 7명, 모범상 표창으로 응급실 최경아 수간호사 외 4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 새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에 경주병원 이경섭 교수와 속튼튼 김내과 김성욱 원장이 수상했다.

한편 개원기념식에 앞서 본원 1층 로비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활발한 후학 양성 및 연주활동을 하는 ‘디 슈팀메’ 앙상블을 초청하여 개원기념음악회로 열어 개원기념일을 더욱 의미 있게 해 주겠다.



02 2013년 1004 Day기념 ‘간호부 나눔 봉사 활동’

간호부는 1004Day(천사데이)를 맞아 환자 및 보호자, 외래객을 대상으로 ‘간호부 나눔 봉사 활동’을 10월 2일 1층 로비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당신의 혈당은 정상인가요?”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당뇨관련 상담 및 식이요법 상담, 무료 혈당검사와 혈압측정을 하였으며, 풍선 및 네일아트, 다트게임, 한방차 제공,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천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간호단위에서도 환자와 플라로이드 사진찍기, 패우메시지 전달, 손마사지 등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곽윤희 간호부장은 “병원을 찾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환우들을 간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부에서 주관하는 1004Day 행사는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국대학교 병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03 중국 중의과학원산하 왕징병원과 MOU체결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중국 중의과학원산하 왕징병원과 본격적인 연구 및 교육 교류를 위해 9월 26일 본원 임상과장회의실에서 2012년 중국에서 체결한 MOU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간의 단기연수 시 숙식지원,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객원교수 임용 및 격년제 공동학술포럼의 진행 등 교육 및 연구의 교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중의학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색과 임상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학생 및 의료진의 교류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04 동국대학교 · 동화약품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협약 체결

– 천연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차별화 된 경쟁력 보유 임상 2상진행, 2017년 발매 목표 –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동화약품은 1일 오후,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향후 신약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는 알레르기 비염을 포함, 각종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이다. 천연물로 알레르기, 염증, 면역조절기능 등의 다중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생약 제제로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보유해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박용기 교수가 3년여에 걸쳐 개발한 이 치료제는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약육성 제품화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다. 전임상 실험을 마치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으로 2017년 의약품으로 발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 제 1회 뉴시스배 길거리농구 의료지원

동국대학교병원은 뉴시스통신사와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협회가 9월 28, 29일 이틀간 개최한 제 1회 고양시 3on3길거리 농구대회에 의료지원을 했다.

곳은 날씨로 인하여 일산문화광장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승은 고양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성인부 총 15개팀 중 갱스터팀이 제 1회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결승전에 앞서 고양오리온스의 최진수, 이현민, 랜스 골번선수가 방문하여 참가선수들과 1:1 대결, 덩크슛 경연대회 심사 등으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요즘 잘나가는 한국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출현함으로 인해 그 영화의 가치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번 주 토크 인터뷰는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같으면서 때로는 업무를 잘 가르쳐 주는 선배 같은 인상을 가진 의과학연구소 임종수파트장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의과학연구소
임 종 수

- **본인소개?** 70년생, 고향은 충북 충주, 95년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을 시작으로 흑석동에 근무하다 동국대병원에서 미래에 대한 멋진 구상을 완성하기 위해 오픈멤버로 입사함.
-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개원 초 중강당에서 무료 검사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바코드도 없이 손으로 직접 라벨 작성하며 하루 종일 채혈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 **현재 의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연구소’를 삼행시로 소개를 한다면?**
연, 연구소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구,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곳이다
소, 소장님은 알고계십니까? 연구소 직원들의 마음을...
- **병원직원들에게 당부의 말?**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병원시스템을 잘 모르고 직원들과의 교류도 없어 많이 애써해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닌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좋겠습니다.
- **본인의 역할과 각오?** 연구원들과 병원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으로 연구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알 리 미

좋은나무 유치원, 병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일시 :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 12시 | 프로그램 : 병원투어, 성교육 및 자세교정프로그램 등

TV방송 프로그램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일시 :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주제 : 환절기 알레르기 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 | 출연 : 사상체질과 배효상 교수